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 IT날개 달고 다음(daum) 세상 주인공이다

농식품부-다음, '농어업인 온라인 홍보지원' MOU 체결

“예산총각의 다이어트 고구마”, “경빈마마의 행복한 청국장”... 농어업인이 만든 ‘이야기가 있는 농수산물 콘텐츠’가 네티즌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포털이 손을 잡고 지원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사장 최세훈)과 농어업인이 온라인에서 농수산물과 농어촌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4월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로 농어업인들은 기존 블로그와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별적인 농수산물 홍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포털 다음의 인터넷 서비스와 노하우를 지원 받아 더욱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가 가능해졌다.

농식품부와 다음은 이번 MOU를 계기로 농어업인 파워 블로거 육성 등을 통한 농수산물·농어촌 홍보모델을 제시하고, 블로그를 농수산물과 농어촌에 대한 건강한 정보유통의 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조손가정 등 농어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을 농어업인·농식품부·다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해 ‘농어촌이 행복한 다음(daum)세상’을 열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다음은 첫 번째 협력프로그램으로 4월 중 다음 뷰에 ‘농수산물·농어촌 홍보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농어업인이 만든 콘텐츠의 전략적인 노출과 상

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인 블로거짱 대회’, 소비자 대상 ‘농수산물 홍보왕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농어업인의 온라인 활용능력과 네티즌들의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 농어업인들은 농식품부와 다음의 지원을 받아 18만 6천여 명의 다음 블로거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지역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 말에 전남·해남의 농어업인들이 ‘다음 블로거 초청 농촌파티’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강원도 평창 농어업인들이 블로거를 초청해 지역 농수산물과 농어촌 자원을 홍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업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홍보하려고 해도 IT능력 부족과 개별적인 활동의 한계로 노력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었다”며, “이번 MOU 체결로 포털의 서비스와 노하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판매소득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마늘 ‘유산균’이 가축건강 지킨다

농진청, 유해균 억제하는 발효마늘 제조법 기술이전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항생제 저항성 유해균 억제를 위한 발효마늘 제조방법을 기술이전한다고 밝혔다. 항균효과가 알려져 있는 마늘을 유산균으로 발효시키면 항균효과가 크게 증가하여 가축보조사료로 활용시 축산물의 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마늘의 항균물질로 알려진 알리신에 억제되지 않는 유산균을 선발하여 발효마늘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한 바 있다.

선발 유산균 *Pediococcus pentosaceus*로 마늘을 발효

News

시 항생제 저항성 포도상구균, 대장균 등에 대한 항균 활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늘을 유산균으로 발효시 항균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마늘의 알리신이 유산균의 작용으로 변형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 연구결과는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지 게재될 예정이다.

항생제 저항성 유해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발효마늘을 육계에 급여시 증체량에 차이는 없었으나 분변내 포도상구균 및 대장균 수가 1/100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특별단속서 42개소 적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학시기를 맞이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등 172개 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개소(24.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건수로는 50건에 달하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HACCP적용작업장으로 허위광고, 생산한 제품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원재료명 허위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며, 위생점검과 병행한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 분쇄가공육 제품 1개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적발업소와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생산업소에 대하여는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햄·소시지·가공육류·발효유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축산식품에 대하여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한편,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수거검사 결과 성분규격에 부적합 제품이 적발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하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4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로 단체급식 신뢰도 제고

2010년 4월 현재 86.2%가 동 서비스 이용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일선 학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이용 확대(전국 초·중·고교의 86.2%)로 올해 들어 학교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의 납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및 규격 등이 기재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사본을 징구하여 왔으나 동 확인서를 위·변조 또는 한장의 확인서를 복사하여 중복 사용하거나 확인서에 기재된 축산물이 아닌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축산물을 포함하여 납품하는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 수도권 초·중·고 117개교 중 (2007년 1월 1일 ~ 2008년 9월 23일) 77개교가 등급판정확인서가 위·변조된 고기를 납품받아 학교 급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경기지방경찰청(2008년 8월 10일)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06년에 개발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부산광역시 및 용인시 교육청과 시범운영 하였으며 20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의무 사용을 권고했다.

2009년 전국의 학교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어 10년 4월 현재 9,579개 학교(전국 초·중·고교의 86.2%)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다.

- 2009년도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이용실적

구분	사용학교	검수량	확인서 검수건수
소	7,945학교	5,002톤	83,421건
돼지	8,411학교	26,699톤	54,046건
닭고기	6,283학교	11,102톤	30,382건
계란	4,808학교	42,339천개	7,187건
계	9,161학교		175,036건

-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에게 2009년도 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2010년 2월) 88.7%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란 축산물 납품시 첨부된 등급판정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및 부위별 생산량을 제시하여, 납품량을 등록·관리하는 총량규제 시스템으로 동 서비스 요청자가 인터넷 접속 후 확인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확인서 위·변조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축산물 부위별로 생산 가능한 물량(kg)을 추정·제공하여 특정부위에 대한 허위납품 가능성을 차단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정부위를 생산 가능량 이상으로 납품시 반품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반품시 반품확인서를 발급하고 3회 이상 위반시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침 시달

또한 학부모들도 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납품받는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으며, 각 교육청에서는 관할 학교의 검수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초·중·고교에서 적용 중인 동 서비스를 유치원, 대학교 및 대형 병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존의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4월 16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뉴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행 소, 돼지, 닭고기, 계란의 등급판정을 말고기 등으로 확대하고, 품질평가 관련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Global 기술교류를 강화하며, 품질평가와 이력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녹색성장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기관의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정장 노연홍)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합사례와 연동해서 표본검사와 검사항목을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수입식품 신고 건수는 총 66,138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20%증가하였으며, 총 중량(2,939천톤) 및 수입 금액(3,289백만달러)도 2009년 1/4분기 대비 각각 14%, 71% 증가하였다.

News

【1분기 수입식품 신고, 총 중량, 수입금액 및 부적합 현황】

년도	수입건수	부적합		중량(천톤)		금액(백만달러)	
		건수	비율(%)	수입	부적합	수입	부적합
2010.3.31	66,138	269	0.4	2,939	1	3,289	3
2009.3.31	54,745	231	0.4	2,573	0.8	1,887	2

※2009년 총 255,341건, 11,302천톤, 8,434백만, 부적합 1,229건(0.5%)

식약청은 1/4분기 수입식품의 부적합 비율이 0.4%로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09년 0.5%)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건수 및 절대량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출국가, 국가별 제조업체, 수입품목에 따라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여 검사 비율을 최고 100배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검사를 운영하고 검사항목도 부적합 이력과 국내·외 위해정보를 고려하여 부적합 항목을 중점검사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국가별 수입건수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전년도 동기와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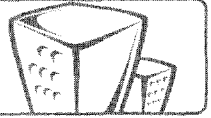
주요 식품으로는 포도주를 포함한 과실주(3,510건 5.3%), 식품첨가물인 혼합제제(3,374건, 5.1%), 기구류 중 스테인레스제(2,453건, 3.7%), 기구류 중 도자기제(2,073건, 3.1%), 과자(1,852건, 2.8%), 배추김치(1,715건, 2.6%) 순이다.

부적합 제품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수입건수 대비 태국 0.8%, 베트남 0.6%, 중국 0.6%, 이탈리아 0.3%, 미국 0.2%, 일본 0.2% 순이었다.

부적합 항목은 건강기능식품 등 기준규격위반, 절임식품 등 식품첨가물 사용위반,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등 미생물, 조미식품 등 이물(금속성이물 포함), 곡류 가공품 등 아플라톡신, 숙지황 등 벤조피렌 순이었다.

식약청은 부적합한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원천적으로 양질의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현지 수출국에서의 관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물 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물 R&D 기획·관리·평가 강화 방안 마련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 승)은 농림수산물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강화에 나섰다.

평가원은 상시 기획체계 구축, 사업범위 확대, 기획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농림수산물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중간·최종평가 등 각 단계별 관리·평가 체계를 강화해 연구성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R&D 기획에 있어서 상시 기획체계 구축 및 정책 연계성 강화, 전략적 기획 및 기획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제1차 종합계획 등 정부 정책에 연계된 사업 분야 및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해야 할 연구'를 발굴·기획해 나간다.

이를 위해 평가원 홈페이지 내에 농어민·식품업체 및 외식업체 등 수요자가 직접 기술수요를 상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상시기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R&D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종래의 생산에 중점을 둔 기술분야보다는 제1차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7대산업 및 20대 세부산업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신소재, 공중산업 등 생명산업기술과 IT·BT·ET 등 첨단분야 융합기술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방법도 주로 농림수산물 관련 학계 내부위주로 이루어지던 연구에서 IT·BT·ET 등 범 과학계 협동·개방연구를 촉진해 나가고, R&D자문위원회 운영,

‘사업기획전문기관’ 및 ‘R&D분석전문기관’ 등과 기획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화된 상시 기획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원은 연구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과제 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각 단계별 관리·평가체계를 강화한다. 과제선정의 중복성 배제를 위해 특허D/B, 논문 D/B, NTIS, 유관기관 검토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과제선정 평가에서는 서면평가·공개평가 및 정책부합성 평가 등 모든 평가 단계별로 60점미만의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평가위원회에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활동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친인척·사제관계·기관 등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과 관계있는 인사는 제외시켜 평가의 현장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간다.

경쟁축진을 통한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과제 선정이후에도 연구목표에 근거한 전주지적 평가체계를 시행해 나간다. 과제가 한번 선정되면 환경변화 또는 수행성공에 상관없이 과제수행기간 종료시까지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상시 기획·평가·컨설팅 및 지원시스템(Plan-Do-See)을 도입하여, 상대평가결과에 따라 중단조치,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내용에 따라 연구내용을 재기획해 조정한다.

중간평가 결과 60점미만 과제는 중단통보하고, 60점 이상으로 ‘계속’ 과제로 분류된 과제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단통보를 하게 된다. 중단통보를 받은 과제중 이의제기를 받아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대상 과제의 10%이상을 중단 조치하게 된다.

※중간서면평가→중단통보(60점미만 및 ‘계속’ 평가 과제중 하위20%)→이의제기→중간공개발표평가→중단조치(중단통보 과제의 50%이상)

Plan-Do-See시스템을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 연차 평가에 시범적용하여, 전체 13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은 중단조치, 4개 사업단은 연구개발비 10~20% 상향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2년차 기획에 반영하여 협약을 완료한 바 있다.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를 강화하고, 후속 연구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간다. 최종평가를 성과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엄격히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과제 참여제한 또는 가점부여 등 후속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R&BD사업과 연계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 현재 바이오기술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R&BD 사업을 내년부터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녹색기술·사업인증, 우수실용기술 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AI 국내 유입방지 및 조기검색을 위한 철새 회귀경로 예찰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3월 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국내유입방지 및 조기검색을 위한 철새 회귀경로 예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로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3월 초부터 오는 5월말까지 흉도·흑산도를 통과하는 철새 가운데 재갈매기·흰뺨검둥오리·뿔논병아리·청둥오리 등 AI 예찰대상 야생조류 31종 위주의 분변채취와 사체를 수거하여 검사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송



부하고 있다.

시료채취는 5~10일 주기로 총7회 실시하며, 매회 30점씩 철새분변 또는 총배설강 시료를 각각의 튜브에 넣어 냉장보관 상태로 48시간 이내에 검역원으로 송부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야생철새 시료채취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검역원의 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역본부 배상호 본부장은 “지난 2008년 발생한 HPAI 발생이 봄철 회귀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회귀하는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3~5월 철새가 처음 머무는 흥도·흑산도에서의 조기 검사를 통하여 AI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예찰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학생과 학부모 축산물HACCP 현장 체험 나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은 4월



9일(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중학생 20여명과 학부모들 10여명을 대상으로 「HACCP 따라 테마체험 여행」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축

산물HACCP 지정 유가공장인 롯데삼강을 방문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아이스크림을 직접 시식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웰빙식품으로 꼽히는 오리가공장인 이목원을 들러 오리를 원료로 만드는 다양한 제품의 제조과정과 축산물HACCP지정을 받은 업체들이 철저하게 위생관리 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면서 예상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준원 관계자는 학생들은 현장에서의 HACCP체험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고, 학부모들도 이번 HACCP체험 행사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석희진원장은 HACCP따라 테마체험 여행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일반소비자(학생 등)에게 축산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시스템인 HACCP를 알리고, 이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축산물 보호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체험사업을 4회 더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생의 취약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